제6강 자크 데리다 : 회화 속의 진리

(1교시) J_Jgjin03_031229_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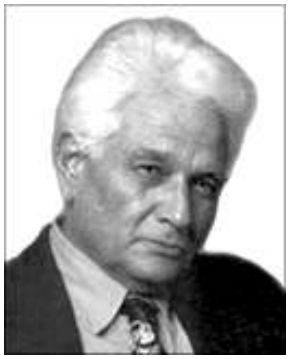
◎ 해석학 대 해체론

'존재와 존재자의 존재론적 차이'를 주장한 하이데거의 이론은 기존의 해석학과 새로운 해체론이 내부적으로 공존,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해체론은 시뮬라크르 철학이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근본적으로 '숭고한' 근원적 진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뮬라크르 사상과 충돌한다.
자크 데리다는 **『회화 속의 진리』**에서 이러한 충돌 사이에서의 긴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 하이데거 vs 샤피로: 구두의 주인은 누구인가?

미술사학자 마이어 샤피로에 따르면 그 구두는 고흐 자신의 것이다.
나치즘은 소자산가들, 특히 농촌의 프티 부르주아들이 공산주의 앞에서 느끼는 공포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정치였다. 하이데거의 글 속에 반복되는 '대지'라는 표현은 실제로 파시즘의 <대지와 혈통의 신화>를 연상케 한다. 샤피로는 하이데거가 대변하는 '대지와 농민의 이데올로기'를 비난하려 했던 것이고, 샤피로의 해석 속에는 하이데거의 정치적 보수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반감이 숨어 있었다.

◎ 데리다가 본 '구두 논쟁'



자크 데리다 (1930~)

데리다는 구두가 한 켤레라는 것과 그 구두가 여성(농촌 여인)에 속하는지 남성(고흐)에 속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데리다는 하이데거의 성급한 동일시와 파토스의 과잉을 비판하면서 샤피로의 하이데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다시 비판한다.
하이데거에게 그림 속 구두가 누구의 것인지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구두의 주인을 알았다면 그에 맞는 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고, 하이데거에게 중요한 것은 '구두라는 존재로 하여금 말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일 뿐이다.
즉 샤피로는 하이데거의 논증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고 하이데거의 진리가 근원적 진리라면 샤피로에게 예술작품의 진리는 여전히 일치, 재현의 진리라는 점에서 한 시대 뒤떨어진 것이다.

www.artnstudy.com

(2교시) J_Jgjin03_031229_05

◎ 샤피로의 하이데거 비판

하이데거에 대한 샤피로의 초점이 빗나간 비난은 "세 가지 도그마"에 기초해있다.

1. 구두는 실제의 주체에게 귀속된다.
2. 구두는 발에 조응한다.
3. 그 발은 육체에 속한다.

샤피로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그림의 제재를 밝히며 구두를 하나의 주체로 귀속시키려 했지만 실제로 구두가 고흐의 것이었는지의 여부는 역시 확실한 것은 아니다.

샤피로는 하이데거의 동일시 오류를 지적하면서, 고흐의 정물화에 나오는 정물은 alter ego, 즉 또 다른 자아라고 말한다. 하이데거의 오류는 작품 속에 작가 자신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것에 있다.

이 지점에서 하이데거와 샤피로는 현격하게 대립하지만 서로 닮기도 한다.

구두를 고흐의 alter ego로 읽은 샤피로와 하이데거는 "또 다른 나의 유령!"이라는 크누트 함순의 말의 영향을 각각 받은 것이다.

◎ 데리다의 샤피로 비판

샤피로는 '자신', '자의식', '자기 인식', '자신의', '초상' 같은 낱말을 계속 사용한다. 샤피로의 이러한 예술가 주체성, 자의식에 대한 인식은 하이데거가 문제삼은 근대의 병적 징후이다. 하이데거에게 예술가란 영매일 뿐이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으며 샤피로는 하이데거보다 문제의식이 한참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다.

◎ 하이데거와 데리다: 숭고와 시뮬라크르

이런 대립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해석에는 그림 속의 구두를 '쌍'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데리다가 보기에 구두는 짝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해석일 뿐이고, **불필요한 해석주의**이다.

"반 고흐의 그림에 유령은 없다. 영상도 없고, 환영도 없다. 이것이 뜨거운 진리다."

샤피로와 하이데거의 공통된 오류는 작품의 진리를 단 한 번에 현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의미결정론'에 있다.

데리다에게 작품의 진리는 결코 한 번에 특권적으로 현전하지 않는다. 작품의 의미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양한 해석 작업을 통한 기표의 놀이, 차이의 놀이를 통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이러한 텍스트들의 놀이에는 원본과 위계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이데거가 근대의 형이상학을 벗어나고도 진리의 현전에 집착하는 **숭고의 미학**이라면, **자크 데리다**는 하이데거처럼 근원적 진리로의 회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 열어주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주목하는 **시뮬라크르 미학**에 속해 있다.

www.artnstudy.com